

삶이 소설이 된 작가

리멤버

박완서





삶이 소설이 된 작가 박완서를 기억하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중 한 명인 박완서는 남성 중심의 문학사에서, 여성 문학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간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상처로 작가가 됐다”라고 고백해 온 박완서의 글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쓰인 것이 많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참혹했던 한국 전쟁을 겪으며 혼란스럽던 한국의 근현대사와 함께 했던 박완서의 소녀, 여자, 엄마, 노인으로서의 삶은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부되어 그 자체가 소설이 된다.

40세의 늦은 나이로 출발하였지만 말년까지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했으며 특히 말년의 작품들은 노년문학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 《그 가을의 사흘 동안》으로 한국문학작가상을 시작으로 2006년 호암예술상까지 많은 상을 받았고, 2011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았다.

2011년 1월, 80세의 나이로 별세하기 전까지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마에서 생활했고 구리시 인창도서관에 박완서 자료실이 마련되어 있다.

박완서 해설 안내

시간 10시, 14시(가족 대상) | 11시, 15시(성인 대상)

※ 관람객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일 4회 / 매주 토, 일요일 운영

모이는 장소 인창도서관 박완서 자료실(2층)

단체 해설 문의 031.550.2565 (구리시 문화예술과)

1 소녀, 박완서

역경을 딛고 꿈을 키우다.

1931년, 경기도 개풍 박적골에서 태어난 박완서는 4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 산과 들을 뛰놀며 꿈 많은 소녀로 자랐다. 교육에 열성적인 엄마 손에 이끌려 서울로 이사 온 박완서는 혼란한 시대적 상황과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유년의 꿈을 키워 나간다.

대표작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며 소녀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주인공과 가족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박완서 문학의 최고작으로 꼽히고 있다.

어록

조급하고 간절하게 산속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2 여자, 박완서

전쟁 속 희망의 꽃을 피우다.

한국전쟁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전쟁으로 집안에 비극적인 사건이 겹치면서 학업을 중단한 박완서는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박완서에게 문학은 좌·우 이념의 갈등 속에서 혼란한 시기를 겪은 그녀의 삶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내일을 살게 하는 희망이었다.

대표작 - 《나목》

데뷔작이며 대표작인 《나목》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이다. 생업으로 학업을 접고 PX 초상화부에 취업하게 된 이경과 미군의 초상화를 그리는 불우한 화가 옥희도의 이야기이다.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삶과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예술가의 내면 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록

옥희도 유작전에서 보았던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며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나목이었다.



3 엄마, 박완서

불혹에 인생 제2막을 열다.

결혼과 동시에 문학과 멀어진 삶을 살던 박완서는 박수근의 유작전을 보고 그에 대한 글을 쓰고자 펜을 잡게 된다. 단 한 번에 써낸 《나목》이 공모에 당선되는데 그때 박완서의 나이 40세였다. 이후 박완서는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작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 작가지만 엄마였던 박완서의 경험과 일상은 작품의 소재가 되어 그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대표작 -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우연히 마라톤 대회를 보고 쓴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일등이 아닌 꿀찌인 마라토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위대함을 느끼며 우렁찬 환호를 보내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꿀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되었으며,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수필가 박완서로서의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다.

어록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꿀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그 무서운 고통과 고독을 이긴 의지력 때문에



4 노인, 박완서

끊임없이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노년기의 박완서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자신의 체험과 회한을 자전적 소설로 풀어낸다. 또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각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예리하게 파헤치고 다양한 글로 써내며, 세상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으로 남게 된다.

대표작 -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박완서의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의 깨달음,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노년이 되면서 죽음과 가까워진 생에 대해 솔직하고 담대하게 쓴 글이다. 인생의 허무와 다소곳이 화해하고 싶다는 노년 박완서의 연륜과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록

돌아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 할 것 천지였다.



박완서에게 한마디

작가 박완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To. _____

From. _____

내 삶이 소설의 제목이 된다면...

소설 제목을 짓고 나만의 책 표지를 만들어 보세요.

Blank area for drawing a book cover.

문화관광해설사가 뽑은 박완서 작품 속 “어록”

나의 아름다운 이웃

사람 사는 집은 다 비슷하단 사실이 놀랍고 유쾌했습니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여덟 개의 모자에는 그 빛난 시간의 추억이 있다. 나만이 아는

그 많던 심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누구나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두부 중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없음 때문이다.

그 남자의 집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애뜻할 수가 없었다.

대범한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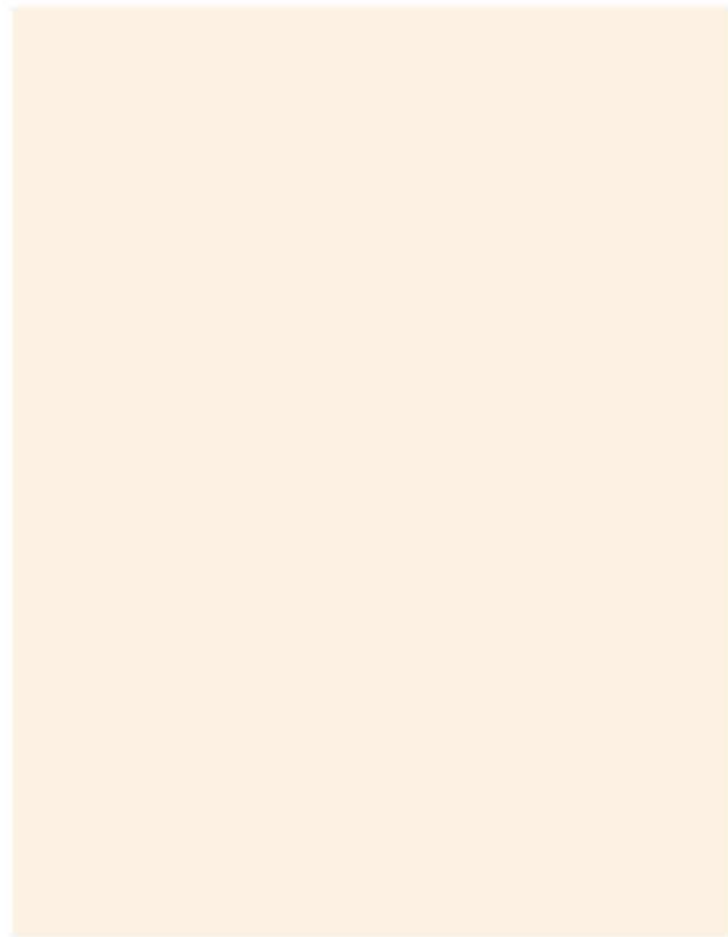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상식은 무시해도 좋다.

친절한 복희씨

편애의 쾌감은 독하고 날카롭다.

어록 따라 쓰기

마음에 와닿는 어록을 골라 따라 써보세요.



삶이 소설이 된 작가

리멤버

박완서

